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원로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15일(목)에 있습니다. 양평으로 다녀옵니다. 당일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가격은 11만원(택배신청시 2만원 추가)이고 사과 5박스, 사과즙 1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됨입니다. 이 나라가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행 2:42-47 / 시 23
벧전 2:19-25 / 요 10:1-10

애 1:7-14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왕영순 김문주 정선희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임창선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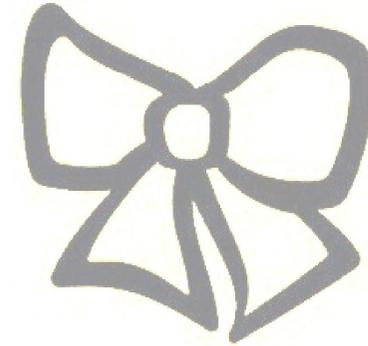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바르고 성실하게 살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와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어이없고 비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울음이 책임 있는 이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의 무더진 마음을 도려내주시고 공감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금순	김동호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순자	김영순	김영아
김인석	이선화	김정주	김정미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시내	박윤숙
방극숙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원금	안세진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유상진	유은정	윤영미	은종인	이계선	이소순	이국노	김민화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예서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인웅	오송경	이자영	이지훈	임고운	오재형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두리	정완수	김재광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조순덕
주은경	최재욱	이수정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무명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성렬	김성한	조영순	김세진	김중수	이순정	김진중
김필순	문금석	문복순	박옥식	시시권	백경임	우성진	이유진	이광석
이경희	이광재	이부곤	이재문	장원호	박성희	조혜윤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한미영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홍소형	무명9	

생일감사헌금

박옥순 백혜숙

녹색꿈헌금

권미정 박호규 강영님 이영순 추현영 무명5

	백혜숙	박성희	조순덕	백혜숙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심영신
	장영숙	신영신	곽혜자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조병주	심경수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김권미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권미숙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곽권희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이증자
	정영선	홍춘숙	이홍선	김경혜
	박혜경	박혜경	정현선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마음으로 읽는 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회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혹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혹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박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늘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특별히 곤경에 처한 이를 정성껏 돌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오펜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곽상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성실 권사	박영실 선생 정원석 집사

5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김금순 강순배 장혜숙
	헌금위원	김인걸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아버지 됨의 영광과 고통

아기의 생명은 아버지가 시작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아기는 아버지가 낳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라는 말입니다.

아기는 아버지가 낳는다는 말을 쉽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생명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요, 아버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가진 모태보다도 더욱 강하고 중요한 부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몸에, 영혼에 아기 방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얼굴도 보기 전에 출근해서 자녀들이 잠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버지, 그야말로 새벽별 보기 운동과 밤 별 보기 운동의 선수인 아버지, 통통 부은 얼굴로 일어났다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귀가하는 아버지, “어휴”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이구”하며 자리에 눕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자녀와 대화할 시간은 없어도 충혈된 눈으로 비디오 한 편은 꼭 봐야 자는 아버지, 술과 담배로 친구 삼고, 애지중지 신문은 옆에 끼고, 일은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나 정작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아내와 자식은 부담으로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막상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때문에 가정과 사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 아버지가 된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신분의 절정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_ 도은미, 《아버지가 되신 당신에게》

큰애를 태에 품고 나서 이 책을 보게 된 것이 내게나, 우리 아이들에게나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른다. 불임으로 힘겨워하는 지인들에게 송구하지만 남자로 태어나 오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리를 네 번이나 앉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듯, 버젓한 학위도 목사 안수증도 없는 내게 알량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네 아이의 압바(아빠)’

라는 면류관이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영광에 따른 고통도 에누리 없이 정비례한다. 애들은 커가고, 나는 늙고, 체력과 인격의 한계를 절감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네 아이의 아버지 됨이 무겁게 다가온다.

안해가 동네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내가 잡지사 편집장을 그만두면서 아침저녁으로 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등하교시키는 일을 맡게 됐다. 그 즈음에 우울증에 걸려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일이 늘어났다. 좋은 아빠가 되리라 늘 다짐했지만 못된 아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원고 마감이 코앞인데 진도가 안 나가면 더 그랬다. 그런 날엔 책도 안 읽어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겨우 밥만 먹이는 정도였다. 아버지 됨의 기쁨이나 영광은 간 데 없던 어느 날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됐다. 저자인 페터 한트케는 이혼을 겪은 뒤 혼자 딸을 키웠는데 그가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대목에서 멈춰 섰다. 그 역시 종일 밥 주는 사람 이상의 역할을 못했지만 그것은 꽤 괜찮은 일이고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이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줬다.

지난여름 성공회 청소년 캠프에 강의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중고등 학생들이 조별로 모인 첫 시간에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열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이에 적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나보다. 질문 중에 “부모님에게 가장 고마울 때는?”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사달라는 거 사주실 때”나 “용돈 많이 주실 때”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날 이해해주실 때”나 “사랑한다며 안아주실 때”는 더더욱 아니었다. 놀랍게도 “밥 해주실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지만 생각보다 유익하다. 페터 한트케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누리는 평안함을 온당치 못한 행복이라고 폄하한다. 수많은 비혼과 무자녀 부부를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부당한 말인지 저자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까지 ‘세계’ 말하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이 컸기 때문이리라.

이 글을 오늘도 ‘밥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분들에게 바친다. 여러분은 지금 꽤 괜찮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